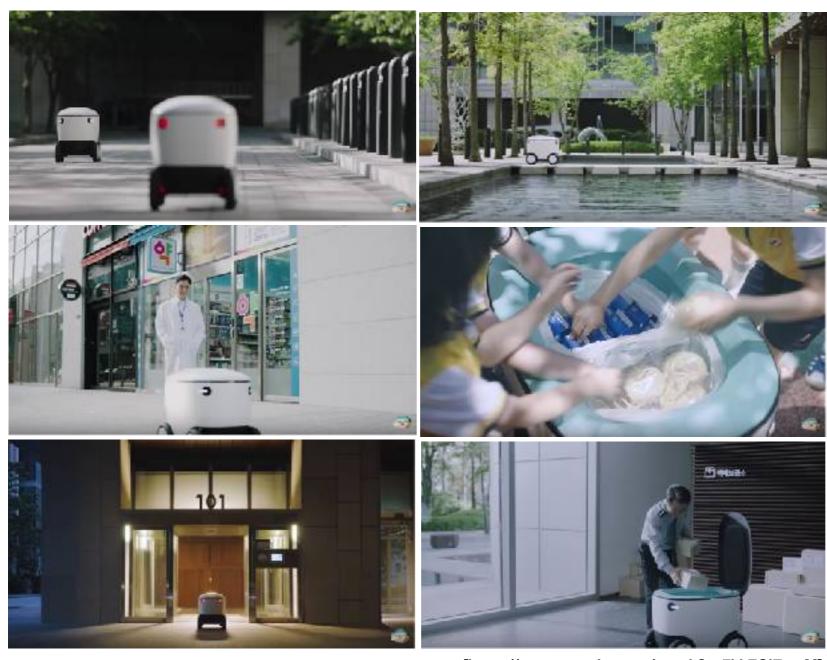
현대자동차 레퍼런스

1-1_배달의 민족이 꿈꾸는 가까운 미래 배달로봇 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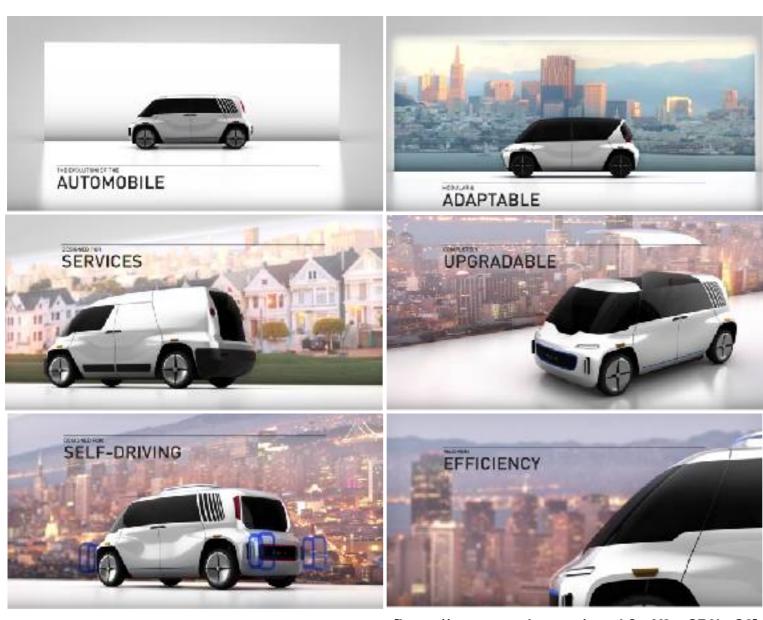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FkkZQjZ_-oM]

|내용|

약국, 빵집, 편의점, 택배, 아이들 간식거리 등을 자율주행로봇이 배달해주는 내용

1-2_EDIT SELF DRIVING CAR



[https://www.youtube.com/watch?v=Y8twSR9kgO8]

|내용|

AUTOMOBILE, ADAPTABLE, SERVICES 등총 8가지 가치 & 기술들을 3D 영상으로 표현

1-3_Rolls Royce 103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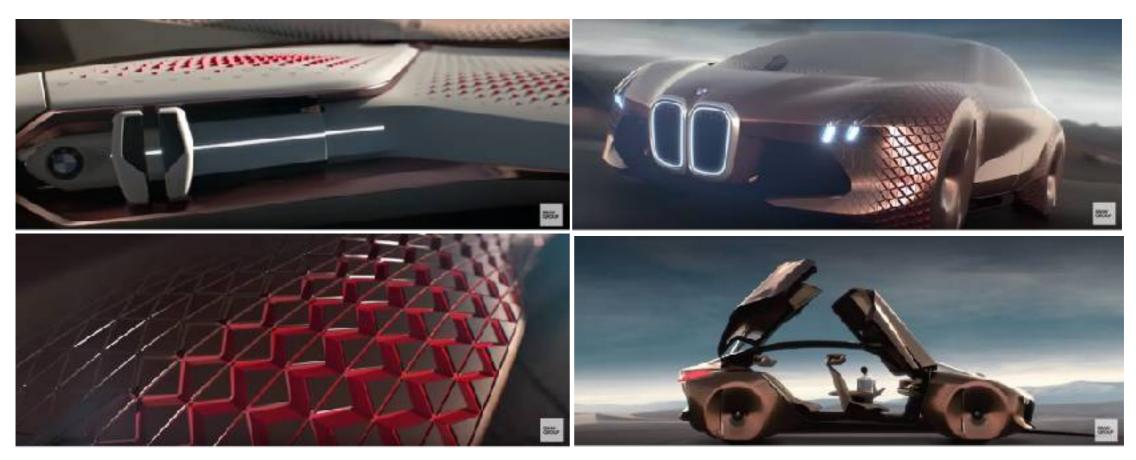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dGSm082ELXY]

|내용|

2016년 롤스로이스가 발표한 컨셉카 영상으로 싱글코치도어, 자동발판, 자율주행 등의 기술 표현

1-4_BMW VISION NEXT 100



[https://www.youtube.com/watch?v=9mucFqpzsGo]

|내용|

- 2016년 BMW가 발표한 컨셉카 영상으로, 자율주행, 다이내믹 휠 아치 등의 기술 탑재



- 실제로 구현된 시험주행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m0QAwrMdaw&t=55s]

1-5_기아자동차 미래도시 피터팬



[https://www.youtube.com/watch?v=FRRnrVyXROk&t=3s]

|내용|

2018년 진행된 광고로 '피터'라는 주인공이 기아자동차의미래 기술력의 도움을 받아 후크선장을 물리치고 네버랜드에 기술의 자유를 가져왔다는 스토리

1-6_Toyota Fun Concept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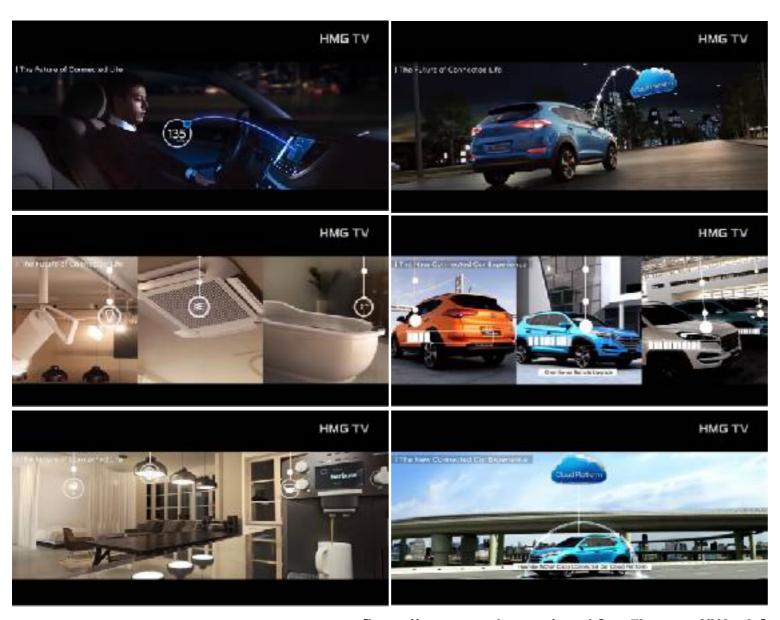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dhylZLwiaJw]

|내용|

자율주행을 넘어 운전자와 교감한다는 내용으로, 운전자의 감정, 피로도에 따라 시각, 촉각 등의 오감을 자극하여 더욱 안전 운전 유도한다는 것을 영상으로 표현

1-7_2017 CES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 3대 방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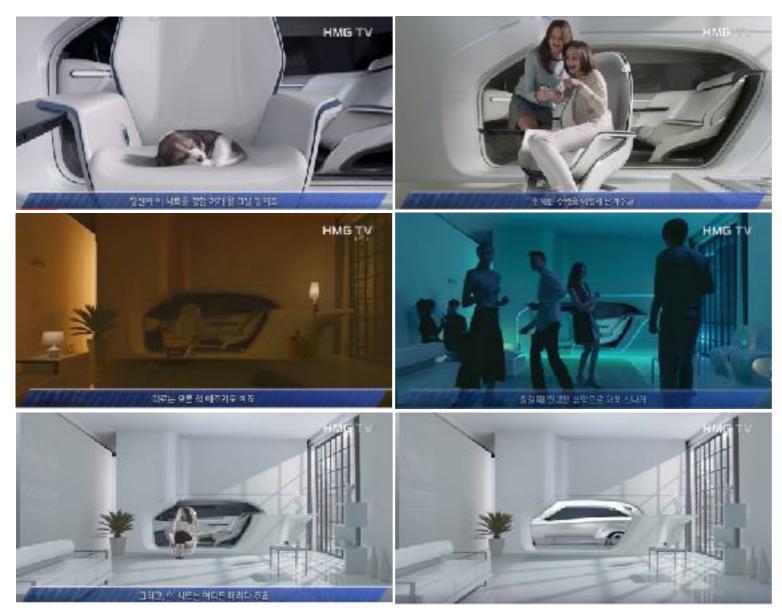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cFlpe_mm-XU&t=3s]

|내용|

2017 CES에서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의 비전 발표 3대 방향성은 친환경 이동성, 이동의 자유로움, 연결된 이동성으로이를 영상으로 표현

1-8_2017 CES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 스마트 하우스



[https://www.youtube.com/watch?v=LfwUbGhnLXI&t=2s]

|내용|

'커넥티드 카 & 스마트 하우스'라는 주제의 광고영상

일상생활을 자동차 시트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 마지막엔 시트가 곧장 자동차로 연결되며 자동차와 삶의 공간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

1-9_Toyota Fun Vii Concept



[https://www.youtube.com/watch?v=IVE3ePe_kJk]

|내용|

사진촬영 후 자동차 소프트웨어 송출 시 자동차의 외관이 이미지로 변경되는 기술을 영상으로 표현

2-1_This is HOW Future Will Look Like (2030 - 2050)



[https://www.youtube.com/watch?v=F7DqlxQ_BgY]

|내용|

50년 뒤의 미래 라이프를 그린 영상으로, 자동차 앞바퀴에서 호버보드가 나오고, 생체인식 시스템 및 자율주행, 드론탑재 등의 신기술 표현

2-2_벤츠가 생각하는 미래 자동차



[https://www.youtube.com/watch?v=BNilLyFnIm4]

|내용|

벤츠가 생각하는 미래 라이프 영상으로, 자율주행, 자동주차, 실내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 표현

2-3_미래도시 소방차 및 대중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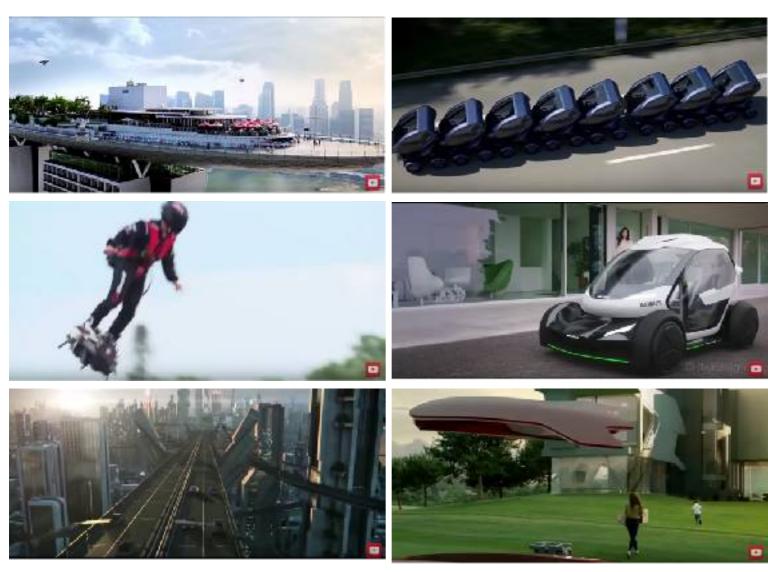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cwb-4k82W1s]

|내용|

미래도시의 소방자 및 대중교통을 그린 영상으로, 소방차 버스는 자동차 위로 운행이 가능하게 끔 확대&축소가 자유롭고 대중교통의 실내모습은 가정집 같이 편한 구성

2-4_The World in 2050



[https://www.youtube.com/watch?v=FDMbEegQR1U&t=544s]

|내용|

미래기술을 기반으로 2050년의 생활을 그린 영상으로, 자율주행, 에어버스, 탈부착 대중교통 등 다양한 기술 표현

2-5_Life in 2050



[https://www.youtube.com/watch?v=hT9GpCJj6nw]

|내용|

2050년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그린 영상으로, 전자안경, 스크린 핸드폰, 홀로그램, 가상현실 게임, 스크린책자, 최첨단 메디컬 서비스 등을 표현

2-6_Future Truck & Buses



[https://www.youtube.com/watch?v=kW2EIXeE9_w&t=527s]

|내용|

미래에 보게될 트럭, 버스 및 대중교통을 그린 영상, 자율주행, 외벽이 원하는 이미지로 그려지는 버스, 자동차 위를 달리는 대중교통 등 표현

2-7_Renault Float - Air Car



[https://www.youtube.com/watch?v=B6K-yQaWgTw&t=8s]

|내용|

공중에 떠다니는 자동차로, 단독으로도 운행이 가능하고 두개, 세개가 붙어서 동시에 운행도 가능함

2-8_Top 5 Autonomous Self Driving Car



[https://www.youtube.com/watch?v=8Clchx1VM0Y&t=184s]

|내용|

5가지의 자율주행 차량을 보여주는 영상, 캡슐형태자동차, 무인운행, 탈부착 대중교통 등을 표현

2-9_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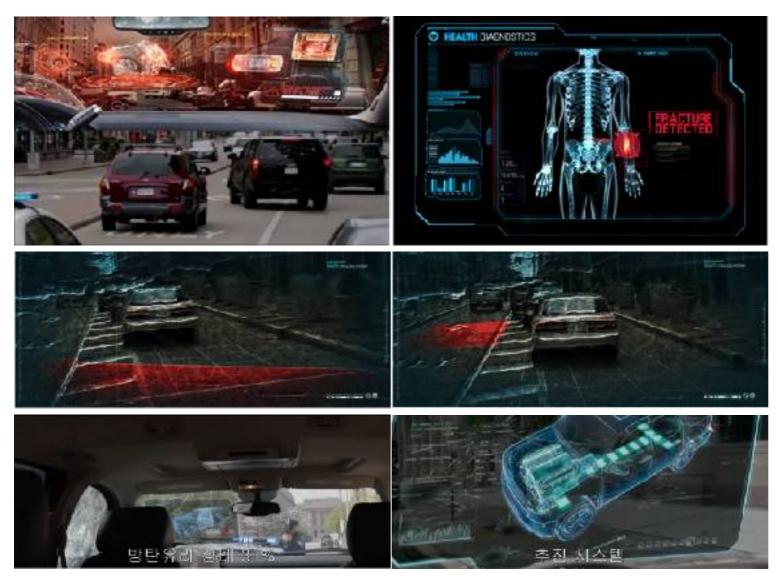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I-UkdRzFvHc]

|내용|

미래의 운송수단 및 대중교통등 미래라이프를 그린 영상

2-10_캡틴아메리카:윈터솔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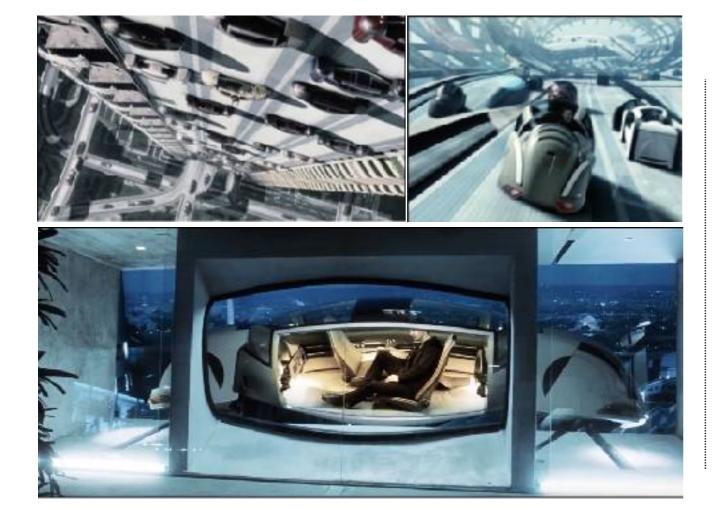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Ajh8Omxfln8]

|내용|

영화속 추격신으로, 자동차는 운전자의 부상, 차량상태 자가검진 및 최적의 길을 계산해주는 장면

2-11_마이너리티 리포트 & 아이로봇



[LAP - 3:16 ~ 3:46]



- 마이너리티 리포트 건물 외벽 주차장 & 무인 운행 시스템 건물 외벽에서 곧바로 창문주차로 이어지고 자동차는 집안의 일부가 됨
- **아이로봇** 영화속 자동차는 기존의 바퀴가 아닌 '구'형태의 바퀴 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yrxGlppqEv0]





[LAP-4:03~4:20]

2-12_아이언맨 외 인공지능 영화들











[https://www.youtube.com/watch?v=mXbMxz4pb-s&t=397s]

|내용|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영화들

|영화 리스트|

아이언맨 엑스마키나 아이로봇 프로메테우스 인터스텔라

현대차그룹, 5대 신사업 분야 23조원 투입…"미래차 시장 혁신 이끈다"



현대하가 지난 1월 미국 라스테이거스에써 열린 CES 2016'에 참가돼 미래성 SUV' 박포(NEXCY'의 차장과 패칭을 내가 최초로 공개성다.(제공 = 청약사동계

현대자동차그룹이 초연결·기술용합·대체 에너지 등이 부각되는 미래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핵심기술 투자를 강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연결 된 이동성과 이동의 자유로움, 친환경 이동성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신의 3대 방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덕을 확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의 핵신을 주도한다는 포부다.

28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차량 전동화, 스마트카(자율주행·케넥티드 카), 로봇·인공지능(AI), 미래 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등 5대 미래혁신 성장분야에 함후 5년간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Google 에 의해 종료된 광고입니다.

|내용|

현대차그룹은 <u>연결된 이동성과 이동의 자유로움, 친환경 이동성 등</u>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3대 방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혁신을 주도한다는 포부

| 5대 신사업 |

- 전기차
- 스마트카(자율주행포함, 커넥티드카)
- 로봇, 인공지능
- 미래 에너지(수소에너지)
- 스타트업 융성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0628010015045]

3-1_전기차

유럽이 반한 현대차 '코나 EV', 노르웨이 상륙

이달 초 첫 물량 도착...'넥쏘'와 함께 친환경차 이미지 강화



노르워크 트램센함구에 도착한 한대자 그나 EV의 모습 /시신자급 현대자동체

현대자동차 '코나 EV(전기차)'가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한 유럽 시장에 입성했다. 업계에서는 노 르웨이의 '코나 EV' 주문 물량을 소화하는데만 2년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26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현대차 '코나 EV'의 첫 선적 물량 100대가 유럽 노르웨이에 도착했다. 지난 2월 유립에서 '코나 EV'를 공개한 지 6개월이 만이다.

첫 선적 물량 도착을 시작으로 현대차는 노르웨이 등 유럽지역에서 '코나 EV' 출고를 진행 중이다. 현대차는 지난 6월부터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등으로 '코나 EV'를 한국서 실어 나르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선적된 '코나 EV'는 총 1614대이다.

'코나 EV는 지난 3월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사전 조사에서 2만명이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 이 중 구매 확정으로 이어진 대수는 6969대로 이들에게 먼지 '코나 EV가 전달될 예정이다. 우선 올해 2500대 공급이 목표다.

업계는 2020년이 돼야 노르웨이에서 주문된 '코나 EV'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차는 노르웨이를 '코나 EV'의 주요 시장으로 삼고 공급에 집중한 계획이다.

|내용|

현대차는 올해 '코나 EV'와 차세대 수소연료전지전기차 '넥쏘' 등을 추가하는 한편 올해부터 매년 신형 전기차를 추가해 2025년까지 총 14종으로 대폭 확대, <u>글로벌 전기차 시장 톱3에 진입한다는 목표</u>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82415241516200&vgb=autom]

3-2_스마트카(Connected Car)

현대자동차, 커넥티드 카 '두뇌' 기술 협업 가속

[보안뉴스 탁미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이스라엘의 차량용 통신 반도체 설계 업체 모토톡스 에 투자하고 미래 키넥타드 카 개발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한다.



[시진=한테기동기]

현대자동차는 오토록스에 천략 투자를 단행하고, 오토록스와 함께 커넥티드 카의 두뇌 역할 을 수행하는 통신 집섯(반도체 집적회로, Chipset)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 했다. 커넥티드 카가 차량 내·외부와 대용함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달리는 컴퓨 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종 데이터를 종수신하고 판단, 제이하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기업이 오토록스다. 오토록스는 2008년 이스라멜에서 설립돼 V2X(Vehicle to Everything) 동신 빈토체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통합 유·무선 내트워크 제어 기술과 침记 보인 솔루션이 적용된 차량용 등신 침셋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이한 V2X 등신 프론이도 동시에 대응이 가능한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내용|

현대·기아차는 또 2020년 고도화된 자율주행, 2021년 스마트시티 내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상용화, 2030년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스마트카 개발 집중

이를 위해 연구개발과 글로벌 선두기업과의 협업도 진행 중이며, 이미 국내외에서 자율주행차 운행 면허를 취득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보완·개발하고 있으며 시스코·모빌아이 등과도 손을 잡았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71016&kind=3]

3-3_로봇, 인공지능

현대차, 중국 인공지능 업체와 제휴…자율주행 프로젝트 참여



현대자동차가 인공지능(AI)와 자율주행 관련 중국의 기업들과의 헌업을 통해 중국시장 에서 자동차 미래 기술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13일 중국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개막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전 자제품박람회 'CES 아시아 2018'에 참가해 중국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 '딥글린트'와 의 기술 협력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바이투'의 자율주행 프로젝트인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CES 아시아 2018'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기조면실을 통해 '중국은 열 정적 기업과 기술혁신에 개방적인 고객들에 힘입어 미국 실리콘 밸리와 함께 모빌리티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는 혁신적인 미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용|

현대차그룹은 웨어러블 로봇·서비스 로봇·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3대 로봇 분야를 선정해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웨어러블 로봇의 경우
산업·군사·생활 지원 등 활용 분야가 다양한 만큼 조기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

아울러 지난해 2월 전략기술본부를 신설하고 AI 관련 전담조직을 구축, 자율주행차와 연계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딥러닝 기반의 AI 플랫폼 기술 고도화도 진행 중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 viewer.mtn?gidx=2018061311505352263]

3-4_미래에너지(수소에너지)

현대차그룹, '재활용 배터리 ESS' 개발 본격화···"미래 新에너 지 시장 진출"

[플러뉴스 박자형 기자] 한테사그룹이 전기자 바타리를 자항였 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개발을 본 학회하여 미래 혁신산업 눈이인 선에너지 시장에 서롭게 진출 한다.

이를 위해 ESS 관련 핵심 기술 및 사업 역량을 갖춘 골로벨 전문 기업과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전략적 합입을 추진 시상 전노 적 입지를 구축한다.

한테시동차그룹은 25일 기환용 테니리 ESS 기발의 기속하 및 사일성 확보 지원에서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인 관란트의 테르 질라(Ward Lottle) 전략적 만드네신 협약을 해결했다.



이번 피드나십 점역은 ESS 관련 산에너지 시장에서 마래 역가리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지원 순환성 제고를 통해 전기차 바타리아. 제활용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진됐다.

또한 자동차 및 에너지, 각 부문에서 사업 감정력을 갖소 글로벌 유망기업이 손작고 글로벌 ESS 시장에 진출한 새로운 사업 기회 을 모색한다는 숙면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지영조 현대차그룹 전략기술본부 부사장은 1935는 환경오림의 확산 에너지 수급 물란 등이 가중됨에 따라 산에너지 산업으로 각 경받고 있다"며 "현대차그룹과 배르질라의 협업은 재활용 바더리 ESS 전시장에서의 미래 성장 공략 발굴뿐만 아니라 전기차 보급 활성하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르질라 아니지 부분의 하비에로 카타다(Javier Cavada) 대표는 "타르질라와 현대하그룹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이 너지 분야인 자활용 배우리 기간의 ESS 제품을 거발해 전 세계 고객 및 파트너들에게 제공한 계획 '이라고 밝혔다.

타르질라는 긴란드의 어디지 분야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서, 전 세계 177개국 이상에서 67GW 규모의 발전 설비 용량을 구축 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시상에서 그 경쟁력을 인성받고 있다

으한 지난해 미국 ESS 시장의 30% 이상을 점우하고 있는 ESS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업체 '그런스미스 에너지(GlearGridh Energy)를 인수해 ESS 설계·제작자이 기술력과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를 두루 갖췄다.

|내용|

현대차그룹은 미래 에너지 확보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룹 차원의 노력을 펼친다는 방침으로, 무공해 미래 모빌리티 확산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와 고효율 배터리를 개발해 친환경차에 적용하고 있으며 차세대 연료전지와 배터리 개발도 진행 중

또 주요 계열사들이 친환경차 관련 밸류체인에 투자해 에너지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친환경·미래 에너지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병행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59673]

3-5_스타트업 융성

현대차그룹, 자율주행·차량공유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 현대차·모비스 주도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정몽구)이 현대지동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미래자동차 시장 기술선도를 위한타법인출자에 적극 나섰다.

23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0개 계열사 중 올 들더 타법인에 출자는 현대자 8곳, 현대모비스 1곳으로 미래자동차 시장의 핵심인 자율주행과 신사업 모델로 각광받는 자동차 공유 경제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차는 2016년부터 미래자 관련 핵심 기술을 보우한 벤처 업체 등에 투자를 통한 기술 공유,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으로 매년 투자 기업도 중가 추세이다.

2015년 4곳에서 2017년 5곳으로 1곳 늘어났고 올하는 상반기이만 총 8곳이 투자하면서 올해에만 반 년 단에 지난 2년간 투자한 기업 수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를 집행됐다.

기업명	투자 대상	취독절	취독공역
현대자	Earlybird	18.02	5,918
	Ionic Materials I	18.03	2.151
	Ionic Materials II		3,226
	Solid Power	18.05	3,236
	CND		1,636
	Metawave	18.05	801
	Autotalko		5,527
	Seematics		1,116
	Obsidian		2,234
현대모비스	스트라드비젼	18.06	8.000

현대차가 투자한 곳은 △얼리버드(벤처투자 사) △아이오닉 머러리얼즈(고체전지개발업 제) △슬리드파워(연료전지 조문업체) △에 타웨이브(레이더 전문 개발 스타트업) △오 토록스(차량용 통신 반도체 설계 업체) △시 대틱스(딥러닝 연진 개발업체) △옵시디언 (열화상 센서 업체) 등 자율주형 관련 기업과 △카 섹스트 도어(CND, 차량 공유업체) 등 차량 공유경제 업체에 각각 투자했다.

현대차는 8월에도 인도의 차량공유 2위 업 체 '레브'에 전략 투자를 진행하면서 카셰어

링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현디모비스는 지난 6월26일 울들어 처음 스트라드비젼에 80억 원을 투자했다.

스트라드비젼은 딥러닝 기반 카메라영상 인식 기술을 보유한 국내 스타트엽 회사로 현대모비스 측은 자물주행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고도의 카메라 인식기술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투자 목적을 밝혔다.

|내용|

미래 혁신기술 확보를 위한 스타트업과의 협력도 강화하기 위해, 한국·미국·이스라엘·중국·독일 등 <u>5대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활용해</u> 현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공동 연구를 진행

또 올해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한국·중국·독일에도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순차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며, 특히 미국에 위치한 현대 크래들은 핵심 신사업 분야의 개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전 세계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로 이를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http://www.ceoscoredaily.com/news/article.html?no=44990]